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tage of the 'Subject Service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용 재 (Yong-Jae Lee)**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2.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
| II. 전사(前史) | IV. 앞으로의 과제 |
| 1.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 1. 기본장서의 개발 |
| 2. 그 후 10년 | 2. 참고서비스의 활성화 |
| III. 주제도서관으로의 발돋움 | 3. 계속적인 직원교육 |
| 1. 주제자료관 체제의 구축 | V. 나오며 |

초 록

개척기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을 가꾸어나가는 사서진은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대학도서관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인식 사이에서 적지않은 혼란과 애로를 겪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이러한 상황을 주제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주제서비스'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주제서비스란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이용자의 주제분야에 맞추어 장서개발 및 참고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연구자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사례도서관을 깊이있게 관찰한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이중 석사학위를 소지한 '주제전문사서'라는 개념보다 2급정사서 수준의 '주제사서' 개념이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의 현단계 과제로서 '기본장서의 개발', '주제별 참고서비스의 활성화', '사서의 계속교육' 등을 언급하였다.

Abstract

Librarians, who work f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experience a lot of confusion and difficulties because of rapidly-changing technological conditions and under-developed understanding of the University Libraries' full potential on the part of the users. I present the concept of 'Subject Services' as an approach which librarians could us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n their own way. The 'Subject Services' refers to the 'subjectized' collection development and reference services, which can more specifically address the users' needs. To make this idea more concrete, I selec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s the case of my qualitative research. And I made use of various research techniqu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 interview'. After looking into the case library in depth, I found that the concept of 'Subject Librarian', a person who holds a second-level librarianship, rather than the concept of 'Subject Specialist', a person who has double master's degrees including tha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s more suitable 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at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At the end of this article, I propose that the development of Core Collections, the improvement of subject-oriented reference services and the continuing education of librarians should be emphasized.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I. 들어가며

우리에게 대학도서관은 광장인가 밀실인가? 해방의 공간인가 아니면 억압의 공간인가?

나에게 그것은 우선 후자의 의미로 다가왔다. 대학시절,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도서관 앞에 장사진을 쳤고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힘겹게 잡은 자리에 앉아 대개 친구노트 복사한 것으로 모의답안을 작성하거나 외국어 단어를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다. 도서관책을 보기 위해 대출신청하면 몇 시간 후에 “대출중”, “조사중”이라는 도장이 찍힌 신청서만 돌려받기 일쑤였다. 그 때는 으레 그런가 보다하고 여겼다. 대학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개 불친절했던 도서관직원들도 또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도서관 앞과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하였고, 도서관과 책이 아닌 곳에서 해방을 갈구하였다.

그 뒤 문헌정보학을 접하면서 대학도서관은 나에게 해방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광장(Forum)이라고 문헌정보학 문헌은 말한다. 그런 이미지는 서구의 대학도서관에는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의 대학도서관은 여전히 밀실이었다. 나의 후배나 제자는 나보다는 한결 나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료’보다는 ‘자리’에 논독을 들이고 있다. 요즘에도 시험기간 중에 학생들의 ‘자리논쟁’이 으레 일어난다. 다음의 글은 최근 부산대도서관 로비에 붙은 학생들의 대자보 문장이다.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는 타인의 자리를 대신 잡아주는 행위를 자제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설 때에도 대학생답게 줄을 한 줄로 똑바로 서서 입장하도록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가 자원봉사단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도서관문화를 만들어봅시다.”¹⁾

다음은 부산대의 한 학부생이 자신의 도서관일과에 대해 구술한 내용 중 일부이다. 대학도서관이 학문의 광장이 아니라 독서실로 주로 기능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5:30 도서관 앞에 길게 줄지어 있던 학생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와 ...”하고 들어간다. 그 줄 첫머리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시에 온 걸까? 일찍 오는 사람들은 특히나 짐이 많다. 가방 세, 네 개에 책도 잔뜩 싸온다. 나도 동문 여자 후배가 부탁을 해서 미리 준비해간 가방을 내 옆자

1) 부산대 총학생회 및 도서관자치위원회 대자보, “이제, 우리가 도서관문화를 바꿉시다.” 부산대 제2도서관 1층, 부착일 1999. 6. 4.

리에 톱 걸어 놓고 그 앞에 책들을 대충 어지러이 퍼 놓는다.

11:00 자료를 찾으러 자료실에 갔다. 시험기간에도 리포트 내주는 교수는 너무 싫다. 거기다 시험까지 다 치면서. ... 아무리 검색시스템을 이용해보도 찾는 자료는 없다.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는 다 어디다 쓰는지 몰라. 우리 학과는 내용은 자식같다. 도서관 서가 한 구석에 찌꺼기 붙어 있는 게 꼭 버려진 아이같다. 그나마 있는 자료도 다 낡고 오래된 것 뿐이고 최신 자료는 언감생심 꿈도 안 꾸다.

14:30 점심 먹고 온 사이에 메뚜기가 내 자리에서 자고 있다. 자기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탁 풀어져서 자고 있는 모습이 안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다.

19:00 저기서 아는 후배가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온다. ... 어쭙잖은 선배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 선배라고 시험문제 좀 집어달라며 막 물어댄다. 조심스럽게 말했는데도 앞에 앉은 사람이 췌려 본다. 예전에는 스터디실에서 과공부도 같이 하고 과제 토론도 하고 했는데...²⁾

반면, 미국의 한 대학도서관에 대한 아래의 이야기는 '지식의 광장'으로서의 도서관을 실감하게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실력있고 인간미 넘치는 사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USC(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토마스 쿠퍼 도서관은 여느 미국 대학도서관들처럼 고객만족이 모토인 듯하다. ...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는 것은 금물이다. 어느새 전문 사서가 달려와 "무얼 도와 드릴까요?"하고 웃음과 친절을 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무당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한국 & 무당'에 관계된 수십여개의 문헌을 찾아준다. ... 신속한 인터라이브러리론(interlibrary loan)도 또하나의 강점이다. 미국 내 아니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서관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문헌을 구해준다. ... 쿠퍼 도서관이 가진 또하나의 매력은 헬프전화에 있다. 7층 건물 곳곳에 위치한 전화에는 궁금하면 수화기를 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서 직원 직통전화 가설되어 있다. 사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했다지만 사람 설명이 더 이해가 쉬울 때가 있지 않은가. ... 필자의 대학시절 도서관을 회상하면, 열람실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토플 공부나 하고 로비에서 일간지 읽고 킁킁한 지하실에서 우동국물에 밥 말아 먹은 게 전부다. 우람한 건물이 그저 거창하게만 보였지 그곳에 정을 붙이기로 참으로 힘들었다.³⁾

위와 같은 예들을 제시하는 나는 어쩌면 식민주의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보고 미국의 그것을 이상(理想) 인양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관심대상은 분명 우리의 대학도서관이다. 광장과 밀실의 이미

2) 부산대 언어학과 학부생 H와의 면담(부산대 인문관 주변 벤취, 1999. 5. 27.).

3) 김동률, "고객만족을 목표로 정보를 서비스한다 : USC 토머스 쿠퍼 도서관의 사례", 《미래의 얼굴》 1999. 5-6, pp. 30-3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지를 보다 선명히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예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는 참조용일 뿐,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맞는 발전방향을 잡아나아가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대학도서관을 해방의 의미로 바라보고자 한다. 정보와 지식이 원무를 그리며 숨쉬는 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다. 대학도서관이라는 숲 속에 이용자가 각자 새처럼 깃들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기도 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풍경을 꿈꾼다. 그리고 그 숲 속에서 이용자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서를 만나기를 몹시 바란다.

학술광장으로서의 대학도서관과 학문동반자로서의 대학도서관 사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는 우리 대학도서관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문헌정보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10년 가까이 관찰해온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 연구가 얼마나 일반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 나는 개별 사례가 지니는 특성에 관심이 더욱 많다. 그리고 그 사례의 내외적 맥락(Context)에 충실한 관찰을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연구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사서가 공통적으로 지고있는 굴레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단계 전략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⁴⁾

나는 이 논문을 위해 그동안 사례도서관의 안팎에서 수집한 다양한 문서 및 논문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서를 비롯한 다양한 학내 구성원과의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식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실상의 주된 연구도구이다.⁵⁾ 나 자신 또한 연구대상과의 상호작용으로 오해와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였다. 나는 이 도서관의 정치학장서를 대상으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으며,⁶⁾ 그 뒤로도 다양한 신문투고와 소논문을 생산하기도 하였

4) 이것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연구방법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의 대표적 저술로 James P. Spradley의 *Participant Observation* (Orlando,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0)과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가 있다. 국내에서는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질적 연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연구로 김영천의 『내 학교 이야기 : 한국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1997)을 들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김정근의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와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울,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5)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 속으로 들어가 관찰하는 것이다. 참여의 정도는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의 맥락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이란 '심층면담'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가 면담의 대략적인 방향이나 주제만을 정하고 면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질문의 숫자나 질문의 표현들을 미리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면담자의 구술이 가급적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질적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헌을 참조할 수 있겠으나, 문헌정보학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소개한 것으로,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24집(1996. 여름), pp.107-161이 있다.

다. 특히 1997년에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1987. 9 ~ 1988. 12)⁷⁾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점검하는 자료집⁸⁾을 내는 작업에 학생들과 함께 매달리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여러 사서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일과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은 어쩌면 꼬끼리의 한쪽 다리만을 만져본 장님이 쓴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과 의식의 실체에 근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아무쪼록 이 글이 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서비스'란 대학도서관에서 사서에 의해 주제별(학분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장서개발 및 참고봉사 활동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모색 중에 있는 개념이다. 나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가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이 주제서비스라는 측면과 현단계 사서 인력에 논의의 초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현실과 현장 사서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전 사(前史)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도서관의 반세기 역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연대기적 분석 보다는 주목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부분적 진실만을 밝혀낼 수도 있겠으나, 수십년간 반복되는 일상 보다는 어떤 계기로 일어난 특정한 사건(또는 분류)이 잠재된 문제의 실체를 확연히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하는 사건이란 1987년에 시작되어 그 이듬해까지 지속된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이다. 이 장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한 국립대학교 도서관이 안고있는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운동이 일어난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도서관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6) 이용재,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8).

7)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편,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 부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참조.

8)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편,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부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7.

1.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이 운동은 80년대의 여느 학생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면도 있고 달리 하는 면도 있다. 즉, 청년 학도들이 기성 사회의 부조리에 의연히 저항한 것이 전자라면, 당시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를 주축으로 전개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라는 점이 후자이다. 이 운동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백일하에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청년학도들은 그들 특유의 정의감과 천재적 언어감각으로 도서관문제를 조목조목 고발하였다. 이 운동을 처음부터 지켜본 김정근 교수의 말을 들어본다.

부산대 캠퍼스에서의 도서관개혁운동은 당시의 도서관학과 학생회가 그 상급의 학생조직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및 총학생회와 연대하여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며 전개하였던 한판 대결이었다. 1987년 가을학기에 시작하여 그후 약 2년간 지속된 이 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 대중의 광범위하고도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대학 당국자들로부터는 도서관개혁을 위한 세부적 요구사항에 대한 거의 주저도 없고 유보도 없는 이행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 학생들은 데모기간 동안 무려 40편에 이르는 대자보문장을 날렸으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균수로 구성된 부산대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대학당국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고사항」(1987. 9. 17), 「총장공고문」(1987. 10. 12) 및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1988. 11. 20)가 생산되어 나왔던 것이다.⁹⁾

이 운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대자보, 문서 등은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자료집』¹⁰⁾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강대훈의 『한국도서관운동론』¹¹⁾과 함께 한국 도서관운동사에 있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 이 운동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국내 다른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강대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7~88년 사서의 친절, 전문성, 도서관자료의 최신성, 망라성, 시설의 개가제 등을 골자로 한 대학도서관운동의 열풍은 남쪽에서 시작되어 북상되었다. ... 부산대 투쟁은 전반적으로 운동성이 약한 전국 도서관학과에 신선한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이에 전남대 문헌정보학과에서 부산대의 경험을 축적시켜 88년 봄부터 도서관운동을 전개시켜 대학도서관개혁을 이룩했다. 충남대 도서관학과 역시 성공적인 두 대학 사례에 영향받아 개혁운동을 준비하던 중 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학회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리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운동의 파급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지해야 할 분야이다.¹²⁾

9)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한울, 1995, pp. 11-12.

10)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편, 앞의 책.

11)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 도서출판 광주, 1990.

그렇다면 이 운동을 통하여 당시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한 것일까? 제36선언까지 나온 대자보 문장들을 보면, 제1선언부터 제17선언까지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안고있는 문제들을 건물, 시설, 자료, 직원, 서비스시스템의 여러 국면에 걸쳐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8선언부터 제36선언까지는 대학도서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서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¹²⁾ 이 운동에서 요구된 사항을 이후 후배 학생들이 93학년도 1학기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설강된 <사회운동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정리한 것이 있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추려본다.

첫째, 폐가제로 인하여 자료와 이용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개가제 실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전문사서 확보, 시설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장과 사서의 자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역대 도서관장들이 모두 보직의 형태로 관장직을 맡아, 도서관장 자리가 문외한이 차지하는 '경로석'이 되고 있는 상황을 학생들은 비판하였다. 관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은 전문인이 되어야 하며, 사서의 경우도 최소한 학사정사서의 자격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열람실 부족문제를 제기하였다. 도서관이 거대한 독서실이 되고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건물에 독서실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넷째, 도서관 건물 문제를 제기하였다. 도서관건물은 자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 적절한 조명, 소음방지 장치, 깨끗한 화장실, 수도시설 및 휴게실 등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러한 기준에는 아주 못미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도서관다운 건물을 신축하라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사서 및 직원의 불친절 문제를 꼬집었다. 전문성을 가지고 친절을 다하는 태도가 사서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당시 도서관운동을 전개한 학생들은 시설, 사람, 장서 등 도서관의 제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 중에 현재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다. 특히 시설의 경우, 도서관건물 하나를 신축함으로써 일정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본래 계획인 6,000평이 아닌 2,000평 규모로 지어짐으로써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현재의 부산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개가제 또한 이 운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장서의 왜소성과 피폐성이 노출되고 말았다. 이외 독서실(도서관자리) 문제는 여느 대

12) 위의 책, p. 162.

1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편, 앞의 책, p. iii.

14) 김영경 등, "80년대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부산 : 여림3미디어, 1993. pp. 254-255.

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해결난망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인력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갈 길은 아직도 멀어보인다. 그러면 아래에서 도서관개혁운동 이후 10년을 점검해본다.

2. 그 후 10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이 일어난지 10년이 되는 1997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는 이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¹⁵⁾이라는 자료집을 내었다. 이 자료집은 같은 해 1학기에 개설된 <도서관 운동론> 과목에서 수강생들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해보고 생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자신 또한 이 강의를 담당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작업하는 과정에 동참하였다. 이 자료집은 7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보고서가 다루는 것은 ‘시설’, ‘학습도서관’, ‘연구도서관’,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사람’이다.¹⁶⁾ 각 보고서의 첫장에는 이 보고서를 생산한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기 도서관운동가들의 후배들에 의해 제시된 이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를 확인하게 된다. 아래에서 그 요구사항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을 간추려본다.

- 도서관장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문직 사서(1급 정사서)이어야 한다.
- 주제사서제(Subject Librarian system)를 도입하고 참고봉사를 활성화하라.
- 사서의 전문업무와 비전문직의 보조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 사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업무, 즉 장서개발과 참고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장서(Core Collection) 구축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현재 교양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도서관과 정보자료 활용법’ 강좌를 교양필수과목으로 바꾸어야 한다.
- 지정도서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연속간행물에 결호가 많은데 이를 보충하고, 결호사항을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라.
- 참고도서는 양과 질 모두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대학당국은 10년전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당시의 약속대로 연구도서관을 6,000평

15)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엮음, 앞의 책.

16) 여기서의 학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이란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최근의 주제도서관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지해오던 이용자대상별 이원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학습도서관은 학부생의 학습활동을 주로 지원하였으며, 연구도서관은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주로 지원하였다.

규모로 조속히 증축하라.

- 도서관은 깨끗한 건물, 정돈되고 조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하라.
- 도서관은 내부공간 배치계획에 있어 이용자를 우선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달라.
- 도서관의 연장개관(저녁과 주말)은 대학의 학문활동 지원에 필수사항이다.

이상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당시와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생들에 의해 각각 제시된 요구사항을 대비하여 보면, 도서관측의 지속적인 수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관장을 비롯하여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사서진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사서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로 크게 장서개발과 참고봉사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사서업무가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에 의한 전문업무와 비전문직에 의한 보조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주장 중 선배 도서관운동가의 요구에서 좀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주제사서를 양성하고 주제사서에 의한 참고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사서란 선진국의 대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석사수준 이상의 '주제전문사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것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현단계에서 실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대학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거의 전부 특정 학문과 관련되어 있고 자료를 찾을 때 특정 주제의 자료를 찾는다는 당연한 상식에 근거하여, 사서진도 주제화된 조직과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아래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단계를 살펴보고 사서진의 여러 과제 중에서 '주제서비스'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7) 나는 석사급 이상의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라는 개념에 비하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사정사서 중심의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라는 개념을 최근에 제시한 바 있다.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29집 (1998. 겨울), pp.273-311.

Ⅲ. 주제도서관으로의 발돋움

1. 주제자료관 체제의 구축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주제도서관 조직을 갖추었다. 그동안 이용자대상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온 이원화체제(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에서 학문분야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주제화체제(제1도서관과 제2도서관)로 바뀐 것이다. 올해 1월에 서비스를 재개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는 여러 개의 주제자료관이 존재한다. 제1도서관에는 예체능자료관(2층)과 과학기술자료관(3, 4층)이 있으며, 제2도서관에는 어문학자료관(1, 2층)과 인문사회과학자료관(3, 4층)이 있다. 이제 이용자는 자신이 속한 주제분야의 자료를 찾기위해 하나의 도서관만 찾으면 된다.¹⁸⁾ 각 자료관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등 각 주제분야의 제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편, 72년 이전에 발행된 자료는 자율도서관(구 과학분관)내 보존자료실에서 소장한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체제에 이르기까지 사서진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논의와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도서관이 주제화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장이자 문헌정보학자로서 오랜동안 그 궤적을 함께한 김정근 교수가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¹⁹⁾라는 글에서 이미 정리하였고, 주제도서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실무과정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나온 최근 문서²⁰⁾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튼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우선 외형부터 상당한 환골탈태를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가장 붐비는 제2도서관의 경우, 이전에는 소음이 가득한 중앙홀, 갑갑한 벽으로 싸인 열람실, 그림 한 장 걸려있지 않는 어두운 계단, 둔중하고 시커먼 철문, 복도를 서성이는 낯빛 얼굴의 학생들, 그 사이에 버려진 듯 놓여있는 목록함 등의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제2도서관은 유리를 통해 내부가 환하게 보이는 열람실과 자료실, 바닥에 깔린 타일식 카페트, 깔끔한 실내배치 등으로 내부환경이 예전보다 한결 나아졌다. 또한 1층에 대출반납데스크가 마련되었으며, 주제자료관마다 참고데스크도 운영중이다. 제1도서관의 경우, 각 주제자료관에 참고데스크가 있으며 1층 로비에는 종합안내, 상호대차, 지정도서제 등을 담당하는 인포메이션데스크가 있다.

18) 그러나 이러한 체제도 주제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고 본다. 여러 개의 주제분관을 가진 선진국의 대학도서관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상 자료가 한 건물에 모여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당시 대학당국이 약속한 대로 최소한 6,000평 정도의 건물이 건립되어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주제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축도서관이 자료를 모두 소장하고 각 층별로 주제자료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19) 김정근,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23집(1995. 겨울), pp. 285-328.

20)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현을 위한 연구』, 부산 :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8.

이 도서관이 외형만 바뀐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장서규모에 있어서도 최근 100만권을 돌파하는 등 양적 성장을 보였다.²¹⁾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학과별 이용자교육, 온라인 참고서비스, 온라인 목헌복사 신청서비스, 자료실 연장개방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우선 외형상으로 주제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서진이 이에 걸맞는 주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다. 주제도서관으로의 조직 개편은 사서진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는 1999년 5 ~ 6월에 걸쳐 주제자료관 참고데스크를 담당하는 사서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제서비스의 현단계를 가늠해 보았다.

면담에 응한 사서는 자료관 별로 1명씩 모두 4명이다.²²⁾ 이들은 실제로 이용자를 상대하면서 참고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참고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참조할 만한 도서관을 찾아가보는 등 주제도서관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다. 면담은 이들이 일하고 있는 참고데스크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주제자료관 참고사서들은 도서관근무 경력이 각각 27년, 23년, 18년, 15년으로 수서업무에서 열람업무까지 웬만한 도서관업무는 거의 다 경험한 사서들이다. 예전에 도서관 참고자료실 데스크에 입사한 지 채 1~2년이 안되는 신참사서나 비전문직이 앉아 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러나 오랜동안의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제도서관 체제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그다지 되어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K 사서 : 주제도서관 운영과 참고봉사와 관련하여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국내에 참조할 만한 도서관의 내부분서를 입수해서 읽어보고, 주제자료관 사서들이 함께 이들 도서관을 방문하여 관찰하는 정도였다. 사실 주제도서관의 개념을 설정한 팀과 주제도서관 이전(移轉) 팀이 서로 다른 점도 다소 문제였다.

L 사서 : 주제자료실 근무를 위해 나 자신이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다. 발령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가 사실 전문적인 주제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교육과

21)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장서 100만권 돌파와 주제도서관 구축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1999년 5월 14일 인덕관에서 개최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편, 《도서관소식》 14호(1999. 6) 참조.

22) S 사서와의 면담(1999. 5. 7),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과학기술자료관 참고데스크.

L 사서와의 면담(1999. 5. 11),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예체능자료관 참고데스크.

C 사서와의 면담(1999. 5. 25), 부산대학교 제2도서관 어문학자료관 참고데스크.

K 사서와의 면담(1999. 6. 3), 부산대학교 제2도서관 인문사회자료관 참고데스크.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3호)

정보수집에 지식과 경험을 배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주제도서관으로의 체제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반응을 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특히 학부생의 경우 약간의 혼란을 겪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자료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주로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이 온다고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아직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참고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고 한다. 교수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낮고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드물어 아직 반응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수서부서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주제자료관 사서가 선정업무에 일정정도 관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정업무가 각 주제자료관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견해도 표출하였다. 정리부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편목 DB를 주제자료관 사서가 열어보고 목록을 수정·보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였다.

S 사서 : 자료추천 취합 및 자료선정 업무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주제자료실 사서가 전적으로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리부서의 인력이 주제관으로 좀더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사서의 편목 DB를 주제자료관 사서가 열어보고 키워드(Key Word)를 많이 넣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 사서 : 현재 주제자료관에서 편목 DB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올린 상태이며, 그 결과 추이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자료관 운영에 있어서 봉착한 애로에 대해서는 주제지식, 정보검색 기술, 외국어능력의 부족을 주로 꼽았다. 사서가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사서인력과 보조 인력이 필요함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제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식을 배양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C 사서 : 기본적으로 외국어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영어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까지 하면 좋겠다.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담당 주제분야의 학문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주제자료관에 입수되는 학술지 이름과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자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L 사서 : 담당 학문분야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넓여야 하겠다. 우선 학과별 교수계획표에 사용되는 교재 및 참고문헌에 대한 서지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수연구업적에 나타난 교수들의 관심분야도 파악하여야 하겠다.

이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이들 주제자료관 사서들은 우선 자신들의 업무에 상당한 재미와 보람, 나아가 의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자료실을 안내하고 함께 자료검색을 하면서 상당한 흥미를 느낀다고 말하였다. 아직은 이용자의 참고질문이 지시형 또는 즉답형 질문에 머무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지만,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질문은 상당한 시간(1일 ~ 7일)이 걸리는 조사형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 주제자료관 참고사서에 의한 주제서비스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업무가 개발되고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상당히 희망적임을 알 수 있었다.

IV. 앞으로의 과제

이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주제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에도 여전히 저발전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하나인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이 이제 다음 발전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현장 사서진의 손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미래가 개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기본장서의 개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학문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으려면, 기본장서(Core Collection)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기본장서란 각 학문분야의 핵심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기본장서가 좀처럼 구축되기 힘들다고 본다. 그것은 사서의 주제배경이 미비한 탓도 있겠지만, 자료선정권이 교수진에게 있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현단계에서는 사서가 교수의 주제지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권의 전적인 이양은 곤란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서가 자료선정의 전과정을 모두 맡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료선정의 주도성을 사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가 지금까지의 기능적 직업인이 아닌 자율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인쇄매체는 소멸하고 있고 전세계의 자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마당에 기본장서의 구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한 국내외 대학도서관을 방문관찰해 본 결과 대학도서관이 양

질의 자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잘 알게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개혁운동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장서 100만권을 확보한 현재에도 이용자들이 즐기치게 자료의 빈약과 열악성을 호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용자의 불만은 어찌면 영원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자료요구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다. 강의별 교재 및 참고문헌의 신속한 입수, 대표적 학술지의 결호 없는 수집, 학문분야별 적절한 참고자료의 소장 등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수준(basic level)의 장서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이다. 교수, 사서, 학생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반면, 기본장서의 구축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다. 사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에게 장서를 공개하면 할수록(예컨대, 도서관개혁운동 이후의 개가제와 주제도서관 체제 이후의 자료관별 운영) 장서의 열악성만 노출시키는 면도 있다. 따라서 주제서비스의 본격화가 요구되는 현단계에서 사서진(특히 주제자료관 참고사서)은 기본장서의 개발이 시급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물론 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국내외 DB의 활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봉사 등 사서는 이용자와 자료를 매개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에의 신속한 접근은 우리에게 보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키는 결과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또한 자료문제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을 빨리 입수하는 것 보다 가까이에 산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고 본다. 토착종자정보를 개발하고 조직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주제자료관을 구축한 상태에서 사서진은 기본장서의 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제자료관의 참고사서는 각 학문의 하부영역과 연구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이용자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학기마다 강의계획서를 확보하여 교재 및 참고문헌을 신속히 자료실에 갖추는 것, 각 학문의 입문서를 읽거나 주제분야 용어사전을 통해 전문용어를 익히는 것, 자료실에 입수되는 연속간행물의 목차 정도는 훑어보는 것, 정평있는 서지도구어로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것, 담당 주제분야의 지식생산 및 유통경로를 이해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적어도 1년이상) 수행한다면, 주제자료관 참고사서는 주제담당분야에 대한 상당한 '서지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교수의 전공지식보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한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주제자료관의 참고사서는 도서관의 기본장서 개발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수서·정리 파트에 13명의 주제담당사서가 있다. 이들은 각자 여러 개의 학문분야(학과 또는 학부)를 담당하여 이용자의 자료추천을 취합하고 자신도 일

정부분 자료선정을 담당하는 사서들이다. 이러한 주제담당사서제는 이미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의 두 번째 해인 1988년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주제담당사서가 수서과 소속으로 4명이었다. 즉, 모든 학문분야를 인문·예체능 계열, 사회계열, 자연순수계열, 자연응용계열로 나누어 사서 1인이 한 분야씩 담당하여 계속적으로 선택도구를 입수하여 학과에 제공하는 일을 하며 부분적으로 사서가 직접 자료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²³⁾ 그러나 4명의 사서가 너무 많은 학과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1997년까지 유지는 되었으나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8년부터는 전체 학문을 좀더 세분하고, 수서 및 정리 부서의 여러 사서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주제담당사서가 자료추천 취합 및 선정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구입 및 조직과 같은 종래의 일상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 주제담당사서는 자료선정과 관련하여 국내서, 교양도서, 교재, 참고도서 등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교수들이 추천한 책에 대해서는 주제분야 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담당 학문분야 교수진과의 의사소통, 출판동향의 파악, 주제분류 활동 등을 통하여 자료선정의 노하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 관련되는 주제자료실 참고사서와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기본장서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참고서비스의 활성화

장서개발의 본격화와 맞물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참고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이것은 물론 주제자료관 사서진이 봉착한 현안이다. 참고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주제자료관 사서진은 먼저 학과별로 안내자료와 주제별 서지를 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연속간행물 기사 색인을 작성하는 것도 제쳐두기 힘든 일이다. 모든 연속간행물에 대해서 기사색인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부 핵심 학술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색인작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참고서비스를 할 때, 이용자대상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과제물 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안내용 카드 및 파일을 사서가 개인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의 경우,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직접 구해주는 것보다는 정보검색 방법을 교육하고 적절한 서지 또는 정보원을 안내하는 것

23) 부산대학교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주제담당사서제 도입", 《도서관소식》 2호(1990. 3), p. 20.

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교수의 경우는 교수개인별 관심주제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수의 주제 및 연구분야를 파악하고 SDI 서비스를 점차 개발하는 일이 요망된다.

또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자료관 사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과별 안내자료, 주제서지, 신간정보 등도 제공하고 학술정보망이나 주제사이트를 연계하여 줄 필요가 있다.

3. 계속적인 직원교육

주제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서의 전문성 향상이다. 현장 사서진과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서들은 주제지식의 함양, 정보기술의 활용, 외국어실력의 증진 등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사실 대학도서관 사서의 경우, 대학사회와 전문 학회 및 협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는 풍부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여건의 열악, 사회적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별다른 계속교육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서진의 계속교육은 우선 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내 직원 사이에 정보공유와 상호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급적 관내 특정 장소(세미나실, 이용자교육실 등)에서 주제발표, 워크샵,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개발이 좀더 잘 되어있는 다른 도서관을 탐방하고 관찰하는 것도 현단계에서 효과적인 사서진의 자기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매우 발달된 서구의 대학도서관보다 국내의 모범사례를 관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소속도서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사서진과의 면담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이었다.

나아가 사서진은 자신의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관내 소식지, 사서들 사이의 정보교류망(예, 도서관메일링리스트 등),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연속간행물 등에 보다 많이 실는 것이 요망된다. 사서들의 논문생산과 관련하여, 특히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사서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V. 나오며

이 글에서 나는 한 대학도서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의 서비스수준 및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도서관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급적 사서진의 입장에서 서서 현단계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모색한 것이기에, 특히 현장 사서진에게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의 주제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대학구성원과 사서진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용자와 자료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으며, 그 둘을 매개하는 사서의 역할 또한 좀더 부각되고 있다. 이제 사서진은 급증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봉사와 자료개발에 나서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도서관조직은 종래의 기능별 계층조직에서 점차 서비스중심의 수평조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도서관도 그 중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도서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서진의 부단한 자기교육과 업무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주제자료관 참고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사서는 주제별 참고봉사를 본격화하여 이용자에게 좀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도서관장을 비롯한 도서관의 관리자는 이러한 참고사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사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도서관서비스가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관장을 비롯한 중견사서는 명령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서비스향상에 함께 동참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독서실' 역할에서 탈피하고, 사서가 '서고지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문동반자'가 되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 글에서 궁구해본 '주제도서관', '주제사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그 길을 개척하는 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 도서출판 광주, 1990. 211p.
 권은경.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 도서관상(像)",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 pp. 423-456.

- 김동률. "고객만족을 목표로 정보를 서비스한다 : USC 토머스 쿠퍼 도서관의 사례", 《미래의 얼굴》 1999. 5-6, pp. 30-31.
- 김병주. "한국 대학도서관의 서지·주제 정보 활동 : 서울 소재교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8집(1981). pp. 31-68.
- 김성수. "사립대학도서관의 직제 현황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pp. 301-334.
- 김영천. 『내 학교 이야기 : 한국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1997. 330p.
- 김정근.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3집(1995. 겨울). pp. 285-328.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한울, 1995. 197p.
- 김정근 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 325p.
-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307p.
- 김정근 편.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울, 1998. 366p.
-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pp. 107-161.
- 김형균 편.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부산 : 여름3미디어, 1993. 422p.
-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학도서관 온라인 소모임.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모색한다 : 대학도서관 살아남기", 《디지털도서관》 제13호(1999. 봄). pp.39-47.
- 박인용.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5집(1996. 겨울). pp.207-223.
- 박준식·박은정.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도서관학논집》 제25집(1996. 겨울). pp. 569-593.
-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실무지침』. 부산 : 부산대학교 도서관, 1971. 82p.
-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현을 위한 연구』. 부산 :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8. 59p.
- 부산대학교 도서관 편. 《도서관소식》 제1호(1989. 4)-제14호(1999. 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동문회 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행사 자료모음』. 부산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동문회, 1994. 70p.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편.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부산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7. 109p.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편.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자료집』. 부산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132p.
- 이용재. "부산대학교 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8).

-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겨울). pp. 273-311.
- 이제환.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도서관학논집》 제28집(1998. 여름). pp. 505-525.
- 최정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1996). pp. 1-23.
- Buc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Chicago, ALA, 1992. 83p.; 김병주 역. 『도서관서비스의 재구성 : 전자도서관 준비를 위한 제언』. 서울 : 구미무역, 1998. 121p.
- Coppin, Ann. "The Subject Specialist on the Academic Library Staff". *Libri*, Vol. 24(1974). pp. 122-128.
- Couch, Nena and Allen, Nancy. *The Humanities and the Library*. Chicago, ALA, 1993. 320p.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1996. 199p.
- Crossley, Charles A.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n Academic Library :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s*, Vol. 26(1974). pp. 236-294.
- Fadiran, D. O.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 14(1982). pp. 41-46.
- Freedman, Maurice J. "Collection Development".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6호(1993. 11). pp. 38-45.
- Holbrook, A. "The Subject Librarian and Social Scientists : Liaison in a University Setting". *Aslib Proceedings*, Vol. 36(1984). pp. 269-275.
- Line, Maurice B. *Academic Library Management*.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91. 266p.
- Messick, Frederic M. "Subject Specialists in Smaller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1(1977). pp. 368-374.
- Michalak, Thomas J. "Library Services to the Graduate Community : The Role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37(1979). pp. 257-265.
- Moran, Barbara B. *Academic Libraries : The Changing Knowledge Center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hington, D. C., ASHE, 1984. 97p.
- Spradley, James P. *Participant Observation*. Orlando,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0.

195p.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 247p.

Stieg, Margaret F.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Reference Librarian in the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Library Journal*, Vol. 105(1980). pp. 2547-2551.

Thompson, James.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London, Clive Bingley, 1987. 265p.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Annual Report 90-93*.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1994.

Wilson, Louis Round and Tauber, Maurice F.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641p.

Woodhead, P. A. and Martin, J. V.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Vol.14(1982). pp. 93-108.